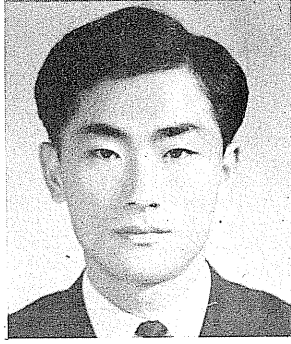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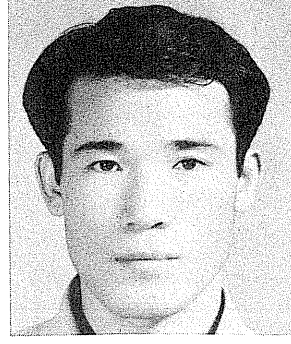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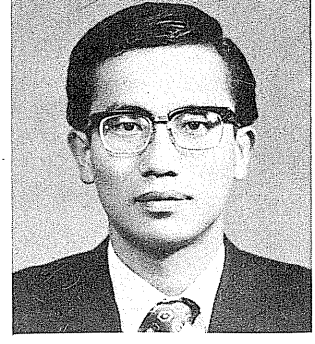
**성동 지부장에  
이 강우 형제**



**동부 지부장에  
김 차봉 형제**



**허 정도 형제  
선교사로**



**김 동우 형제  
선교사로**

성동 지부에서 지부장단 보좌로 일해오던 이 강우 형제가 성동 지부장에 지지되었다.

지부 및 지방부의 일에 능숙한 이 형제는 송 정섭 전 지부장의 뒤를 이어 모든 지부내의 조직을 재 정비하고 모든 회원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그의 열성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 제1보좌에 이윤희 형제를 제2보좌에 민덕기 형제를, 서기에 김우일 형제를 임명하였다.

그는 지난 4월 29일 결혼했으며 훌륭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송 명화 형제,  
호남 예술제  
문예부분 최고상**

지난 5월 23일에서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광주 관광 호텔에서 전남일보사 주최 호남 예술제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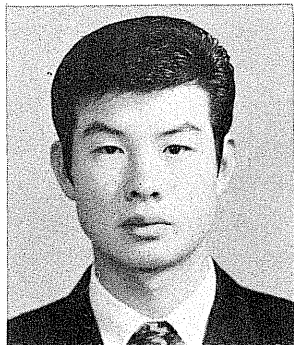
이번 예술제에서 서부지부의 송 명화 형제는 문예부분에서 최고상을 탔는데 그는 현재 서라벌 예대 연극 영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이며 여러 차례 문예부분에 입상한 관록을 가지고 있다.

동부지부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시던 전종철 형제의 뒤를 이어 여러차례 지부장을 역임한바 있는 김 차봉 형제가 새로이 동부 지부장으로 지지 되었다.

김 형제는 유능한 지부장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벌써 동부지부의 모든 조직을 끝마쳤다.

그는 바쁜 중에서도 교회의 건물 내부를 정리하고, 화단을 정리하고 회원들 모두에 관하여 관심을 갖기에 여념이 없다.

그는 지부장으로서의 소감을 함께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제1보좌에는 하 봉식 형제를, 제2보좌에 김 해성 형제를 각각 임명하고 서기에는 강 영민 강원배 형제를 각각 임명했다.



중이며 여러 차례 문예부분

지난 5월 2일 부산 동구 지부의 허 정도 형제가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임지인 목포 지부로 떠났다.

그는 지부에서 신권회 집행서기를 역임한바 있으며 불타는 간증으로 앞으로의 선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나이 25세인 허형제는 7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 그가 주님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 왔다고 한다.

부산 지부의 역군으로서 많은 일을 해 온 김 동우 형제가 지난 4월 18일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들었다.

그는 부산 지부의 건축에 모든 시간을 바쳐서 봉사했으며 지부장단에서, 또 지방부 주일학교 역원으로서, 장로 구름장으로 오랫동안 일해온 훌륭한 형제이다.

올해 나이 28세를 맞는 김 동우 형제는 5년간의 신앙생활을 밀바탕으로 훌륭한 선교사업을 할것을 믿어마지 않는다.

**청소년 대회 준비 절정에**

금년도 청소년 대회가 각 지방부 별로 7월말부터 8월 초에 걸쳐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선교부 상향회에서 선교부 단위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던 이번 젊은이의 제전은 각 지방부 상향회의 훌륭한 지도력, 참가 희망 회원수, 초 맘모스 제전의 운영, 예산 등의 문제로 선교부장님이 지방부별로 실시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대신 청소년대회 준비를 위한 지방부 역원 세미나를 선교부 상향회주최로 6월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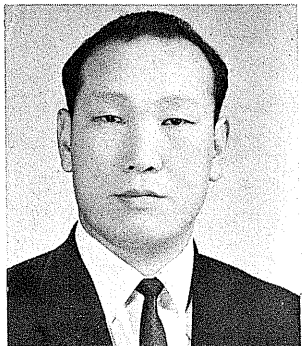
한편 서 지방부, 동 지방부, 영남 지방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조직된 호남지방부 상향회에서도 청소년 대회를 거족적인 지방부 행사로 치밀하게 준비를 진행하여 이제는 거의 완료되어 마무리를 짓고 있는 형편이다. 선의의 경쟁을 벌리고 있는 각 지방부 상향회 역원들은 장소를 동 지방부가 춘천 위도, 서 지방부가 강촌, 영남이 월례로 정해 놓고 서로 훌륭한 장소라고 은근히 자랑(?) 하고 있다. 호남을 제외한 각 지방부 상향회에서는 작년에도 참석자들

## 호남 지방부 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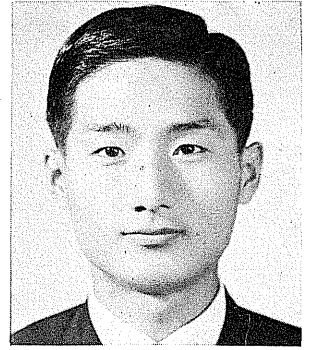
5월 20일과 21일 양일 간에 걸쳐 호남 지방 대회가 광주 지부에서 목포, 여수, 군산, 전주, 동광주, 광주 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선교 부장단과 선교부 보조 조직의 역원들이 함께한 이 대회는 이 지방부에 넓은 지방부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이 많은 성도들이 참석, 심지어 뒷자리와 계단에까지 서서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는 성황을 이루었다. 토요일 오후 6시에 갖은 보조 조직 역원회에서는 선교부 역원과 지방부 지부 역원들이 진지한 토의를 통하여 지도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주일 본대회에서는 부라운 선교부장 부처, 이호남, 박재암 부선교부장, 박병규 지방부장 등 여러분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김종택 형제를 지방부장단 제일보좌로, 그리고 제2보좌에는 최 송민 형제를, 서기에는 정 현기 형제를 임명하는 한편 최상섭 형제를 지방부 청남 상향회 회장으로, 김예두 형제를 지방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지지했으며 새로운 장로도 여러명 탄생시켰다. 오후 1시부터 갖은 합동 간증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훌륭한 간증을 하여 지방 대회의 마지막 모임을 영적으로 끝냈다.

## 차 중환 박사 새로운 책 출간

캘리포니아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 있는 차 중환 박사가오는 6월께 "사막식물의 생태학"이라는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그는 동 대학 과학 교육과 주임 교수로 있으면서 월레스 박사와의 오랜동안의 연구중 공동 집필하여 출판 과정에 이르렀다. 또 그는 한국성도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전해 달라고 그의 서한에 덧붙였다. 한국일보 미국 소식란에 게재된 그에 관한 기사를 함께 실는다.



사막식물생태학출판  
차중환박사, 7월7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 과 주임교수로  
있으면서 "유.시.앨.애이  
"교환교수로 와있는 차중  
환박사(37)가 동교 식물  
학과"월레스"박사와 공동  
으로 "사막식물의 생리생  
태학"을 공동집필, 오는 7  
월말7개 출판할 예정이다  
작년에 도미한 차박사  
는 "파라마운트 시티"의  
원예대학장 으로서도 잠시  
일한일이 있으며 한국에  
서 식물학에 관한 학술논  
문만도 50여편 발표 했었  
다.



## 서 지방부 대회 갖다

지난 달 첫 주인 5월 6일, 7일에 있었던 서 지방 대회는 유례없는 성황을 이루었고 성공리에 모임을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5명의 새로운 장로가 탄생하였으며 지방부장단과 일부 지부의 역원 변동이 있었다. 그 동안 신촌 지부장으로 수고하시던 임 규선 형제가 지방부장단 제2보좌에, 지방부 상향회 역원이던 오 광근 형제가 지방부 서기로, 청운 지부 지부장단에서 일하던 이 남선 형제가 지방부 집행서기로 부름을 받고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서 지방부 지방부장단은 한 인상 형제를 중심으로 확고한 조직을 갖게 되었고 항상 발전하고 모범을 보이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되었다. 신촌 지부장으로 일해오던 임 규선 형제가 지방부장단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으므로써 신촌 지부는 손 재정 형제를 새로운 지부장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사진은 이 남선 형제와 임 규선 형제

## 영남 지방부 대회 개최

6월 3, 4일 부산 지부에서 엘 에드워드 부라운 선교부장의 관리하에 영남 지방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주제는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 (교정 42:29)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다.

6월 3일 전체 역원회에서는 선교부장단 및 선교부 보조 조직 역원과 부산, 부산 동구, 동래, 대구, 마산 지부 및 진해 지역에서 참석한 역원들과 분반 모임을 가진뒤 영화 "거룩한 힘"을 감상하고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6월 4일 오전 8시에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이 열렸고 오전 10시에 지방부 합창단의 (지휘: 김성숙, 반주: 한혜자) 찬송으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장 지방부장은 지방부의 명칭을 "영남 지방부"로 개칭한다고 알려 주시고 첫째 가정 복음 교육, 둘째 선교 사업, 셋째 가정의 밤에 대해 강조하시고 이를 실천 목표로 삼자고 하셨다.

또 이번 대회에서 동래지부의 이용호 형제는 장로 신권의 지지를 받았다. 회원들은 선교부장단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고 오후 1시에 가진 간증회에서 굳건한 간증을 서로 나누었다.

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 너무 좋았던 대회를 가졌던 바 있으므로 올해에도 훌륭한 대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못 기대가 크다.

젊은이들의 가슴을 부풀게하는 이 청소년대회는 고교 졸업 연령 이상이 참석하여 3박 4일 또는 4박 5일동안 야외에서 펼쳐 지는 청소년의 대 제전이다. 특히 금년에는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 대회로”라는 스로건을 내걸고 병어리 저금통에 회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문자 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 최대의 맘모스 대회가 지방부별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어 교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서울 동 지방부 대회 갖다

지난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 동 지방부가 동부 지부에서 열렸다.

이날 가진 모임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장내를 가득 채웠으며 새로운 3명의 장로가 탄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대회의 주제를 교리와 성약 42:29절—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계명을 지킬지이다—로 정한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 지도자들의 “계명을 지키”에 대한 강한 간증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었으며 또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서 현봉 형제가 해임되어 섭섭함을 금할수 없었다.

새로운 역할에는 지방부 집행서기에 동부 지부의 양 해운 형제가, 동부 지부장에는 김 차봉 형제가 그리고 성동 지부장에는 이 강우 형제가 각각 임명되어 전열 정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 주게 되었다.

## 한 익상 형제 결혼

지난 6월 6일 동부 지부의 한 익상 형제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 생활을 해 온 안 은옥 자매와 경희 대학교 서중석 박사의 주례로 서울 예식장에서 12시에 화촉을 밝혔다.

이들 형제와 자매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 상향회 및 지부장단에서 일해온 역군으로서 유명하다. 이들은 신방을 미아리에 차렸다.



## 방송을 통한 물몬 소개

서울 서 지방부 지방부장인 한인상 형제는 6월 13일 오후 4시 10분부터 약 15분에 걸쳐 서울 중앙 방송국 인기프로그램인 “하오의 로타리”에 출연하여 물몬 계보 사업을 전국에 소개했다.

대담식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서 그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조를 구원하기 위한 계보사업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범세계적인가를 밝혔으며 또한 한국 성도의 족보가 마이크로 필름화되어 유타 주 쏘트 레이크 시 커튼우드 화강암 굴속에 저장된다는 희소식을 전하므로써 우리 물몬교회를 한국에서 재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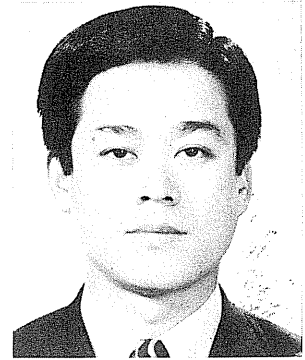
## 동 지방부 세미나 갖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동 지방부에서는 “지도자 양성”이라는 주제하에 용인 정신병원 내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지방부장을 모시고 갖은 이번 모임에서는 주제 발표를 김차봉 지부장, 남 영진 평의원, 서희철 형제 김종균 형제님께서 해주셨으며 마지막으로 김창선 지방부장께서 결론을 내려 주셨다.

이날의 주제 발표와 토론은 썩 진지한 열띤 모임이 되었으며 지방부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줄로 믿는다.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 모임에는 그중 갓 결혼한 이 강우 형제와 양 해운 형제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더욱 더부드러운 모임을 만들었다.

세미나가 끝난후 몇가지 재미있는 활동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낸 형제 자매들은 지방부의 발전을 약속했으며 가족들이 함께하여 봄나들이의 기분도 곁들일수 있었다고...



## 신촌 지부장에 손 재정 형제

오랫동안 동부 지부에서 지부장단을 역임하다 신촌 지부로 간 손 재정 형제가 신촌 지부장으로 지지 되었다.

임 규선 형제의 뒤를 이어 지부장이 된 손 형제는 훌륭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이루 다 말로 할수 없다고 그의 감격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또 그는 제1보좌에 임철희 형제를 제2보좌에 최희중 형제를 서기에는 홍성택 형제를 그리고 집행시기에는 전영수 형제를 각각 임명했다.

